

— F-41 —

조기위암 치료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의 임상적 유용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민병훈 · 이준행 · 이종렬 · 김재준 · 이종철

목적 : 내시경 점막 절제술 시행시에 일괄 절제는 병변의 완전 절제율을 향상시켜 국소 재발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병변의 완전한 조직학적 평가를 제공하여 시술 후 치료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최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이 도입되면서 이전의 내시경 점막 절제술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병변의 일괄절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기위암 치료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기위암에 대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행받은 2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완전절제 및 일괄절제 여부, 합병증 발생 여부, 재발 여부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1.8 ± 9.7 세였고 남녀비는 3.8:1이었다. 총 222예의 병변 중 점막암이 187예(84.2%), 점막하암은 35예(15.8%)였다. 병변의 평균 크기는 15.7 ± 9.7 mm였으며, 크기가 20 mm 이하인 경우는 77.5%, 2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22.5%였다. 병변의 일괄절제율은 92.3%, 완전절제율은 83.3%였으며, 20 mm 이하 병변에서는 각각 93.0%, 87.8%였고, 20 mm 초과 병변에서는 각각 90.0%, 68.0%였다. 점막암의 일괄절제율은 91.4%, 완전절제율은 96.3%였으며, 20 mm 이하 병변에서는 각각 92.1%, 98.0%였고, 20 mm 초과 병변에서는 각각 88.9%, 88.9%였다. 합병증은 출혈이 3.6%, 천공이 3.6%에서 발생하였으며, 1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유되었다. 완전절제된 점막암 중 수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받지 않고 6개월 이상 내시경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경우는 104예였으며(평균 추적관찰 기간: 11.5 ± 4.3 개월) 이 중 3예(2.9%)에서 재발이 발견되었다. **결론 :** 적응증에 합당한 조기위암에 대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은 효과적이며 비교적 안전한 국소치료법으로 생각된다.

— F-42 —

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 1예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소화기내과

*허민 · 김병욱 · 이보인 · 지정선 · 최황 · 장정원 · 최규용

조기위암이나 위 선종에 대한 치료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의 시행이 증가하면서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급성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지연형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다. 저자들은 유문륜 주위에 발생한 위 선종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로 제거하고, 이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을 풍선확장술로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증례 :** 71세 남자환자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한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원위 전정부에 유문륜을 감싸는 형태를 보이는 2.5×1.5 cm 크기의 중등도 이형성을 가진 선종이 진단되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5개월 후 환자는 구토를 호소하여 시행한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에서 유문륜 대만측 궤양에 동반된 유문부 협착이 관찰되었고, 음식물이 위내에 저류되어 있었다.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3개월째 다른 증상 호소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